



기독교 문명개혁운동: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력
홍성건
규장

홍성건 목사님의 책 『기독교 문명개혁운동』은 NCMN에 대한 소개와 방향성 및 미래 사역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NCMN은 Nations-Changer Movement and Network의 약자로 N의 의미 Nation은 단순한 국가를 넘어 각 도시나 나라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교육, 매스미디어, 예술, 종교, 과학기술, 가정 등의 영역 하나하나로서 작은 의미의 ‘네이션’이라는 뜻이다. C의 Changer는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각 영역을 변화시켜 각 영역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을 뜻한다. 즉, 정치영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경제 영역에는 하나님의 정직이, 교육영역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매스미디어 영역에는 하나님의 진실이, 예술 영역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경건이, 과학과 기술영역은 하나님의 창조, 가정 영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를 주는 ‘변혁자’를 의미한다. M과 N의 의미인 Movement와 Network는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 교회의 사역을 넘어 함께 연합하며 네트워킹을 이루어 공동체로서 힘있게 세상에 변화를 주자는 뜻이다.

이 책은 하나님나라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교회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를 기독교 2천년 역사 안에서 밝히고 있다. 하나님의 주도로 시대마다 어떤 운동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사회 변혁을 구현해 냈는지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다.

1장에서는 NCMN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2장은 NCMN에 관한 세계기독교의 관점을, 3장은 NCMN의 전략적 관점에 대한 평가가, 4장은 NCMN의 방향성과 미래 사역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NCMN의 사역에는 <쉐마 말씀학교>, <왕의 재정학교>, <체인저 리더십 학교>, <차세대 리더십 세우기 운동> 등이 있는데 그 중 <쉐마 말씀학교>는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공동체와 국가의 변혁이 말씀에 기반이 되는 것을 강조하며,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는 ‘말씀 배가운동’을 펼치고 있다. <왕의 재정학교>는 하나님과 재정 두 주인을 섬기며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운동을 전개한다. 나아가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도록 가르친다. <체인저 리더십 학교>는 사회의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지도력으로 내 자신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배우고 훈련하여 사회 변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책 속의 한 줄

하나님은 역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계획을 따라 의도적이며 주도적으로 일하신다. 그러므로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p.105